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교리적 연대감

(개혁주의 교리와 관련하여)

최정균 목사
(갈보리 교회)

1. 개혁주의(Reformed Faith) 기초로서의 성경중심사상(Biblicism)

Eccelesia reformatata semper reformanda est!

“개혁된 교회(Reformed Church)는 항상 자신을 개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¹⁾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의해 스스로를 규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철저하게 계속해서 개혁(*semper reformanda*)하는 교회이다.²⁾ 이는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로서, 개혁에 있어서의 ‘계속성’과 ‘철저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현이다. 역사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개혁주의라는 표현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개혁주의란 쾰링글리(Zwingli, 1484-1531)와 칼빈(Calvin, 1509-1564)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 그룹이 루터파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루터파’와는 구별되며 차별화되는 사상이다.³⁾ 개혁주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 철저하며 끊임없는 개혁을 시행한다. 이러한 개혁주의 사상은 16세기 개혁자들을 거슬러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을 거쳐, 1세기 바울의 가르침⁴⁾, 즉 성경의 가르침에서 연유한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이며 철저한 개혁’은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상이다.

개혁주의의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철저히 계속해서 개혁한다는 개혁주의의 기초는 **‘성경 중심 사상’**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성경과 함께 전통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였으나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만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였다. 종교개혁의 좌파로 불리는 재세례파의 열광주의가 성경과 더불어 성령에 의한 내적이고 직접적인 계시(영적 경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만을 인정하였다.⁵⁾ 역사적으로 성경과 인간의 전통 혹은 성경과 인간의 경험과 같은 혼합적이며 협력적 권위를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성경’을 견지하며 성경에 따른 계속적이며 철저한 개혁을 감행한 것이 개혁주의의 기초이다.

이처럼 성경의 독점적이며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인식은 개혁주의적인 신조와 교리를 형성함에 있어서 으뜸 원리에 해당한다. 심지어 ‘다섯 가지 오직’(Five sola) 중에 어디에 강조점과 중심성을 두느냐에 따라라도 신학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신득의(오직 믿음)라는 내용 원리(실질 원리)에 강조점을 두는 것에 비해서, 개혁주의는 성경중심

1) 마키다 요시카즈, 『개혁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인천:아벨서원, 2002), 40. 각주 3을 참고하라.

2) 마키다 요시카즈, 38.

3)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부산: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 12-13을 참조할 것.

4) 이상규, 17.

5) 마키다 요시카즈, 42를 참조할 것.

주의(오직 성경)라는 형식 원리에 그 우위성을 둠으로써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⁶⁾ 루터는 이신득의라는 내용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였기에 내용원리를 ‘디아포라’(diaphora-본질적인 것)로 설정하고서 이것을 제외한 모든 카톨릭의 예배의식에 있어서 잔재요소들을 ‘아디아포라’(adiaphora-비본질적인 것)⁷⁾로 설정하여 포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칼빈은 오직 성경이라는 형식 원리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잔재들을 단순히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며 모든 전통을 성경에 근거하여 평가, 비판, 제거함으로써 모든 가톨릭적 잔재를 제거’⁸⁾하고 루터파와 비교해서 더 철저하고 지속적인 성경적인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섯 가지의 ‘오직’들 중에 어떤 것에 그 중심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원리(이신득의)가 형식원리(오직성경)를 규정하게 되고 형식원리로서의 성경의 독점적이며 절대적 권위가 약화되는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성경중심사상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성경(형식원리)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권위의 유일성과 절대성, 그리고 중심성과 충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내용원리들(교리들)은 형식원리(성경)에 의해서 지배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그 반대의 상황이 가져오는 결과는 파괴적이다. 마키다 요시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파 교회는 오직 성경을 절대적 기준(norma normans)으로서 인정하고, 신조에 대해서는 상대적 기준(norma normata)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신조는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절대적 기준’인 성경에 의해서 ‘상대적 기준’인 신조를 더욱 성경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항상 요구되는 것이다.⁹⁾

개혁주의가 루터파에 비해서 더 계속적이며 철저한 성경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신칭의라는 내용 원리에 강조점을 두었던 루터와는 달리 칼빈이 오직성경이라는 형식 원리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내용원리들(신조와 교리들)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형식 원리(절대적 기준-성경)의 내용원리(상대적 기준-교리)에 대한 우선성과 수위성을 개혁주의 개혁의 기초로서 인식하고 보다 계속적이며 철저한 개혁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¹⁰⁾

성경에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철저한 개혁을 위한 계속적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다. 인간은 성경을 여전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기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성경의 진리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계속적인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 때문이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 생래적인 생소함과 적대감을 지고 있다. 거둬나지 않은 자연인들로부터 복음을 왜곡하며 대적하는 세상정신이 끊임없이 분출되어 나온다. 부패한 인간에 의한 오류는 각 시대마다 진리에 대해 끊임없는 도전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끊임없는 응전을 필요로 했다. 역사적으로 각 시대 마다의 성경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이 바로 ‘개혁’

6) 마키다 요시카즈, 46-47을 참조하라.

7) 이상규, 48-50을 참조하라.

8) 이상규, 50.

9) 마키다 요시카즈, 68-69.

10) 카톨릭의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권위로서의 성경의 유일성과 충분성에 대한 공격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엘 비키 외, 『오직 성경으로』(서울:지평서원, 2011), 133-161을 참고하라.

이며 교리의 형성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혁이란 계속되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완료형이지만 인간의 개혁은 진행형인 것이다.

성경은 무오 하지만 신앙고백문서는 유한한 인간이 만든 문서라는 점에서 무오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 존재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 지속적인 개혁은 교리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적 의미에서의 개혁은 아니다.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교리가 더욱 성경에 근접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오류를 분별해내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일 뿐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적이기에 그 진리를 상대하고 취급해야 하는 나약한 인간 자신은 개혁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진리의 절대성이 인간에게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진리)에 더욱 근접하며,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철저한 개혁이 요구된다.

개혁파의 경우에는 시대마다, 지역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조를 만들었으며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개혁파 교회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파 교회는 결착된 정적(靜的)인 의미에서 신조교회(信條敎會)가 아니고, 끊임없이 새롭게 고백하여 가는 동적(動的) 의미에서 고백교회(告白敎會)라고 여겨온 교회이다.¹²⁾

2. 개혁주의 교리로서의 다섯 가지 오직들(Five Sola)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과 동시에 이미 ‘다른 복음’(갈1:8-9)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성경의 상당부분이 교회 내외의 이단적 사상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이후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미 계시된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이단들의 공격에 대한 응전으로 신조들과 신앙고백서들이 작성되어왔다. ‘교회사에서 등장한 이단에 의해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자 교부들은 이단으로부터 성경적 신앙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이 믿는 신앙을 교리화 하였다.’¹³⁾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바로 ‘오직(sola)’이라는 단어였다. 루터의 발견은 구원의 조건이 단순히 믿음이나 행위냐의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의 믿음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분성’(sufficiency)을 발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간교한 중세의 로마 카톨릭도 믿음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카톨릭과 개혁주의의 첨예한 구분은 행위냐 믿음이나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은혜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각각 필요조건과 충분조건¹⁴⁾으로 보는데서 온다. ‘오직’(sola)이 충분(족)성을 표현하는 단어임을 감안할 때, 바로 이 충분성이야말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갈1:8)과 ‘다른 복음’(갈1:8,9)을 구분

11) 이상규, 182.

12) 마키다 요시카즈, 68.

13) 이상규, 183.

14) 마크 데버 외 6인, 『십자가를 설교하라』(서울:부흥과개혁사, 2009), 129.

하는 사활이 결정되는 분기점이 된다.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갈1:12)이다.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복음의 심장(heart)은 바로 충분성에 있다.¹⁵⁾ 충분성에 대한 의구심이 바로 불신앙이며, 충분성에 대한 확신이 신앙이다. 바로 이 ‘오직’이 교회를 넘어 지게도 일어서게도 하는 분수령이 된다. 복음의 핵심적인 특성은 그것의 충분성과 즉각성¹⁶⁾에 있다. 교회사 속에서 성경의 핵심적 진리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을 방어해 내면서 ‘오직’의 교리들(Five Sola)이 형성된 것이다. 개혁주의는 ‘오직’(충분성)의 교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임에 천착한다. 유해무 교수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5대 오직’은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시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¹⁷⁾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ontgomery Boice)는 복음주의자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위대한 종교개혁 교리들인 ‘술라들’이며 이 다섯 가지의 신앙 고백 없이 참된 교회, 특히 오래도록 살아남을 교회란 분명히 없다고 평가하였다.¹⁸⁾

3. 충분성에 대한 공격

교회사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은 성경의 ‘오직’의 교리에 집중하여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충분성에 대해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하고 각종 세상 정신들로 보충해야 한다는 시도가 있어왔으며, 이것이 교회를 배교로 이끄는 단초가 되었다. 성경의 충분성(sola scriptura)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간의 전통과 의식 혹은 경험들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공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Sola gratia)을 부인하며 인간의 협조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공격하였다.¹⁹⁾

우리는 오직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왜 마귀의 공격이 ‘오직’에 집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은 다름 아닌 유대주의적 배경을 지닌 율법주의적 이단이었으며, 골로새 교회의 이단은 유대주의와 신비주의를 결합한 형태의 초기 영지주의였다. 모든 공로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 이단의 모태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초대교회에서부터 등장하였던 것이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한 공격이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 진리인데도 영지주의는 더 많은 것, 더 수준 높거나 더 완전한 영적 원천에 대한 거짓된 약속을 제시했다.²⁰⁾

누룩의 보충과 첨가

15)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발제에서는 ‘복음’과 ‘오직의 교리’를 혼용해서 사용하니 양해를 바란다.
 16) 즉각성은 충분성과 연관된 특성으로서 죄인이 믿는 순간에 즉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가톨릭의 확신의 점진성 내지는 불확실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호라티우스 보나르,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 (서울:지평서원, 2003), 147-177을 참조할 것.
 17)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개혁주의를 말하다』 (서울:SFC, 2011), 26.
 18)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개혁주의 서론』 (서울:부흥과개혁사, 2010), 39.
 19)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 의지의 협력을 주장한 논쟁은 야콥 아르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로부터 촉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알미니안들이 제출한 항의서에 대한 거부와 함께 아르미니안파들의 5개조에 대항하여, 칼빈주의적 입장을 재천명하는 5개조 93항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도르트회의(The Synod of Dordt)에 의한 도르트신조(The Canons of Dordt)이며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교리’(TULIP)이다. 그러나 이 5대 교리와 그 강조점인 예정론을 개혁주의의 전체교리로 제한하거나 핵심교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상규, 149-171을 참고할 것.
 20) 존 맥아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서울:부흥과개혁사, 2008), 25.

교회에 대한 세상 정신의 공격은 언제나 **진리(+)** 무엇이 형태²¹⁾로 등장한다. 즉 진리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보충하는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믿음의 충분성에 의구심을 갖고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신인협력설: Synergism)이 카톨릭과 반(semi) 펠라기우스 또는 알미니안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단적 사상들은 ‘오직’의 교리에 대한 왜곡이며 공격이다. 부정확한 교리와 경박한 성경 해석이 용납되고 성경적인 지혜와 분별이 사라져 가는 곳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단순한 충분성 이상의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²²⁾ 인간들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보충, 추가, 첨가하려는 모든 시도와 공격들이 각 시대마다 교회로 침투하였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왜곡과 함께 배교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각 시대정신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침투하였으나, 충분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거기에 **누룩**을 첨가²³⁾하는 면에서 그들의 본질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결정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루터는 신인협력설이라는 누룩이 결국에는 구원론이라는 온 덩이에 퍼진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따라서 쟁점이 되었던 것-오늘날에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로’ 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였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이든 덧붙이는 것은, 곧 은혜의 은혜 됨과 선물로서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다.²⁴⁾

성경은 어떤 진리이든 그 자체의 충분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반해 모든 교묘한 모조품들은 충분한 진리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의해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믿음)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보충하거나 추가하려고 하게 된다. 마귀는 진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무엇이 유사품을 제시함으로써 대체 만족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신앙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진리는 보충이 필요한가? 진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혹은 신비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수행 등의 지원을 받아야 온전해지는가? 성경에 계시된 신적인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며 충족하다. 진리에 무엇인가를 보태려는 행위는 순수한 진리의 생수에 불순물을 섞는 것과 같다. 신적 진리에 인간의 보충이나 첨가와 같은 무모한 행위는 진리를 더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변질과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단 왜곡된 모조품(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되고 가르쳐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품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 모조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거룩한 교회를 형성할 수 없으며 그 대신에 종교적이며 배교적인 집단을 이루게 된다.

기본 값

21)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 목사는 거짓 교훈이나 사상의 모습이 언제나 계시의 첨가나 그리스도에의 첨가, 믿음에의 첨가의 형태로 등장한다고 일찍이 경고한 바가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영적 침체』 (서울:새순출판사, 1977), 55-76(제13장)을 참고할 것.

22) 존 맥아더, 25.

23) (마 16:6, 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갈 5:9, 개정)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24)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개혁주의 핵심』 (서울:부흥과개혁사, 2010), 51.

전적인 타락의 결과로 처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설정되어 있는 기본 값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²⁵⁾ 모든 인간이 지닌 이와 같은 기본 값에 의해 ‘다른 복음’이나 ‘유사복음’은 자연인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대 간 자연계승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오직(sola)’의 복음은 거둬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고전1:23)으로 여겨 지기에 소외되며 자연계승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생래적으로 이 ‘오직’의 복음에 대해서 생소하게 여기며 미련하게 여기며 적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처음부터 본질상 대중 친화적이거나 대중 적합적이지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²⁶⁾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는 그렇게도 흥왕하던 참된 복음이 세대가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리에 대한 무관심을 부르고 그 결과로 망각과 왜곡,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겪는 모습을 교회를 통해 볼 수가 있다. ‘신앙의 표준이나 교리가 무시되는 곳에는 항상 이단, 이단적 사상이 나타났다.’²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각 세대마다 새롭게,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며 망각한 세상에 선포하며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멸시하며 왜곡하고 대적하려는 전체 세상(인류)과 맞서 치열하게 분투해야 하는 항구적인 숙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각 세대마다 항상 교회의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복음의 왜곡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며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 호튼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매순간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대상인 그리스도를 놓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는지라, 믿음의 시초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사는 동안 우리 앞에 복음이 플래카드처럼 걸려 있어야 한다. 복음은 기독교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주 복음화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²⁸⁾

당연시 여기는 복음

교회가 교리적 무관심과 함께 경계심을 늦추고 분별력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지 못하며 인간의 기본 값을 파악하지 못할 때, ‘당연시 여기는 복음’²⁹⁾의 수렁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 빠르게 탈 신학화, 탈 교리화가 진행되며 교회의 배교가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소시니안(Socinians)과 퀘커교도(Quakers), 그리고 경건주의자가 신조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교리적인 무관심 혹은 교리에 대한 비관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교리를 무시하는 경건주의적 풍조가 독일에 번지면서 교회들이 자유주의화 된 점은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다. 교리적인 무관심은 결국 자유주의 신학의 운상 역할을 한 것이다.³⁰⁾

25) 마이클 호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서울:부흥과개혁사, 2009), 174를 참조하라.

26) (요일 4:5, 개정)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일 4:6, 개정)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고전 2:14, 개정)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7) 이상규, 183.

28) 마이클 호튼, 167-168.

29) 영국의 복음주의자 데이비드 깁슨(David Gibson)이 말한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 데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구원 얻은 후의 기독교인의 나머지 삶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호튼, 161을 참조할 것.

30) 이상규, 180.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소외와 탈 교리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오늘날 복음은 교회 밖에서의 전도를 위한 쪽 복음의 형태로 축소되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성경의 중심이며 전체 교리로서의 ‘오직’의 복음이 선포되거나 가르쳐지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당연시 되는 복음’의 피해자였다.

내가 필요로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확신시키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중생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말해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설교는 언제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회중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특별히 금세기 교회의 주요한 실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³¹⁾

바울 당시의 교회의 경우를 보면 이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충분성을 공격하는 거짓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에게 찰나의 외도나 나태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계속되는 거짓 교훈의 도전에 따라 계속해서 성경적인 철저한 개혁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항구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쳐야 한다. 마이클 호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자는 성도인 동시에 죄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복음으로 먹어야 하는 필요 이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 회심 시뿐 아니라 순례 기간 내내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능력’ (롬1:16)이다. 주일마다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명하게 선포된다면, 성도는 믿음과 선행 가운데서 힘을 얻을 것이고, 비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³²⁾

만일 도덕주의-자력 구원-가 우리의 기본적 성향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도덕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정규적으로 설교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례, 성찬, 그리고 설교는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기신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촉구한다.³³⁾

협의적 복음에의 매몰

교회 안에서 복음이 외면당하고 폐기되는 현실은 비단 로이드 존스 목사가 파악하고 평가한 것처럼 단지 목회자가 교회 안의 회중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이유에서 온 것만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목회자들이 협의적 복음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요,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눅24:27, 요5:39, 히1:1-2). 그러므로 복음은 비단 설교의 한 장르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설교가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복음 설교’라고 볼 수 있다. 목회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광의적 복음을 발견해야 한다. 개혁주의적인 성경신학적 관점과 유산에 의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의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모형론적이고 점진적이며 유기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복음은 비단 구원론과만 관련되지 않는다.

31)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와 설교』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77), 191-192.

32) 마이클 호튼, 320.

33) 마이클 호튼, 312.

루터파의 경우에는 죄인의 구원을 축으로 한 ‘구원론적 접근’이 특징인 것에 대해서 개혁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점으로 하고, 동시에 시점으로 사고하는 ‘하나님 중심적 접근’이 특징인 것이다.³⁴⁾

개혁주의 목회자는 단지 구원론과만 관련된 협의적 복음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접근으로 보다 풍성한 복음을 성경으로부터 포착해내고, 더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교리적이며 성경신학적 실력과 경건을 갖추어야 한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도록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의 신조와 교리가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이렇게 광의적인 복음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사실 교회가 이처럼 좁은 의미의 복음에 매몰되며 탈 신학화, 탈 교리화가 진행된 것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나 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성경 그 자체 즉,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균형 있게 중시하는 ‘모든 성경’(tota scriptura)³⁵⁾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쇠퇴에서 연유한다. 마키다 요시카즈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개혁파 신앙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과 ‘전성경’(Scriptura tota)이라는 두 개의 원리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의미에서 성경을 중시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 의거하는 것과 함께 성경의 진리를 일부만을 편중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전체를 중시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원리가 개혁파 신조의 작성에 있어서도 기능하게 된다. 즉, 성경에 의해서 순수하게 더욱 전체적으로 계시진리를 고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만 하는 교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³⁶⁾

세상정신의 유입

인간의 기본 값인 성경의 ‘오직’ 교리에 대한 회의주의와 무관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조차 복음이 당연시 되고, 협의적인 복음으로 축소되고 폐기됨과 동시에 세상정신이 유입되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회는 기복주의, 변영신학과 교회성장주의, 심리학, 펠라기안, 마케팅, 실용주의, 이머징, 신비주의 등의 다양한 세상정신에 의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다. 박순용 목사는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에서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심리학, 실용주의, 신비주의 등의 세상정신이 유입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진리로 결속된 연대가 해이해지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 고전적인 복음주의가 처음으로 형성되었는데,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와 교회 운영 방식과 관점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기독교 교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요소 두 가지는, 성경을 인정하자는 것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신 대속 사역의 중심성과 필요성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최소 공통분모로 남겨 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타고 세상 정신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이 두 가지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³⁷⁾

34) 마키다 요시카즈, 82.

35) ‘모든 성경’에 대해서는 이상규, 15,40과 마키다 요시카즈, 47-54를 참조하라.

36) 마키다 요시카즈, 69.

37)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서울:부흥과개혁사, 2009), 361.

이러한 복음주의의 대대적인 연맹에 의해 교리적 연대성에 대한 구체적 확인과 합의 사항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연합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도리어 세상 정신의 교회 유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세상 정신들이 교회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진리에 빠르게 첨가되고 있으며 진리는 왜곡되고 있다. 개혁주의 기조인 ‘성경중심사상’에 따라 계속적이며 철저한 개혁 정신을 망각하고, ‘오직’의 교리들을 무시한 결과에 따라 교회는 배교의 물결에 빠르게 휩쓸려가고 있다.

순전한 진리

모든 진리에 대한 왜곡은 ‘오직’(sola)의 교리, 즉 성경을 따라 진리의 충분성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써 분별할 수 있으며 맞설 수 있다. 그래야만 첨가된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한 진리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에 계시하신 진리를 따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의 동기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선조들은 바로 ‘오직’(충분성)의 교리가 성경 진리의 요체임을 간파한 것이다. 오직의 교리는 다른 무엇이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시작되지 않았고 성취되지도 않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고, 성취되었으며, 적용되고 완성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진리,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자량을 허용하지 않는 진리, 인간이 보충하고 보완하려 하면 왜곡되고 파괴되는 진리, 인간으로부터의 일체의 협력이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진리이다.³⁸⁾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진리가 발견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발견된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각 조항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만,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고립된 채 제각기 홀로서 있는 보초들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통째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다.³⁹⁾

4. 교리와 교회, 그리고 예배와 생활의 개혁

교리와 참된 교회의 형성

개혁주의의 교리적 개혁은 참된 교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키다 요시카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역사적 개혁파 교회는 교회형성의 토대로서 신조를 더욱 성경적으로 준비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다....성경적 신조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하고 그것에 기초한 교회형성에 대한 노력은 ‘교리근성’(敎理根性)에 기초하는 단순한 ‘교파형성’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불가시적 교회’를 ‘하나의 가시적 교회’로써 구현하고 유일하게 거룩한 공회에 참석하는 참된 교회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⁰⁾

38) (사 48:11, 개정)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고전 1:29, 개정)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 데이비드 웰스, 『용기 있는 기독교』 (서울:부흥과개혁사, 2008), 48-49.

40) 마키다 요시카즈, 73-74.

참된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리의 역할은 지대하다. 교리 개혁을 통한 참된 교회의 형성은 결국 예배와 삶의 개혁과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성경적인 신조를 얻고, 더욱 순수하고 포괄적인 성경적 진리를 토대로 해서, 더욱 성경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개혁과 교회가 신조를 계속해서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⁴¹⁾

개혁파 신앙은 신조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처럼 교리의 순수성을 철저히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것은 교회론적으로 더욱 철저한 성경적인 교회의 형성을 위한 것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들이 더욱 철저히 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것이다.⁴²⁾

칼빈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전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성례가 시행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⁴³⁾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세례와 성찬으로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한 성경적인 교회의 형성은 철저한 성경적 교리의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성경적 교리의 선포를 통해 세례와 성찬이라는 신앙고백과 예배의 행위로, 다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심으로써 참된 교회의 위용을 갖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교리의 선포를 통해 죄인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성경적이며 참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것이다(요14:20, 요15:5, 갈2:20, 고후5:17, 롬6:8).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부르사(롬10:17, 고전1:21)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엡1:4-6), 선한 생활의 공동체(딤후2:14)가 되게 하셨다.

교리와 예배, 교리와 생활

박순용 목사는 종교개혁자들이 골로새서 2장 9절~3장 14절의 말씀으로부터 교리만의 개혁이 아닌 교리와 예배와 삶의 개혁이라는 세 가지 개혁의 요소를 발견하여 종교개혁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설명한다.⁴⁴⁾ 그 이유는 교리와 예배와 생활의 개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교회형성의 틀 안에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의 선포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의 행위로 이끌고 이것이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오직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만 성경적인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 성경적인 교리의 회복에 의해 성경적인 예배와 생활의 개혁이 따라 오며, 성경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사람이 된 예배자가 성찬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어 예수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⁵⁾ 마이클 호튼은 교리와 예배, 생활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41) 마키다 요시카즈, 69.

42) 마키다 요시카즈, 74.

43) 존 칼빈, 『기독교강요(하)』(경기: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23.

44) 박순용, 364-365.

45)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142-143.

바른 교리(or thodoxy)와 바른 실천(or thopraxy)은 뿔레야 뿔 수 없고 메시지를 이루는 상호 의존적인 요소다. 따라서 신조 없는 행위는 복음 없는 율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은 교리에서 송영을 지나 봉사로 나아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⁴⁶⁾

칼빈이 교회의 표지 가운데 복음 선포의 행위를 우선시 한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배의 행위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원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충분성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⁴⁷⁾ 교회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다른 무엇으로 보충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며 절대적인 권위와 표준으로써 충분할 뿐 아니라, 구원과 변화시키는 일에도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시119:55-56, 105, 딤후3:16). 오직 성경적인 교리의 신실한 선포를 통해 발생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참된 교회의 형성고 예배와 삶에 직접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리의 선포를 통한 성령의 내적이며 효과적인 부르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교회의 예배와 생활 공동체로서의 능력과 활력을 친히 공급받게 하시는 것이다(요15:4-5).

제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가르치고 고백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즉, 은혜의 방편인 설교와 성례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회집한다. 또한 교회는 고백공동체요 예배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⁴⁸⁾

교리와 예배의 깊은 상관관계에 대해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저는 종종 목회에 막 들어선 젊은 목회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회중을 하늘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회중이 탁월한 예배를 경험하는 정도는 그들이 신령한 진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가장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교회는 무미건조한 땅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에 있어 깊어지지 않으면 회중은 예배를 통해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진리로 영광을 발견한 영혼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감정적인 조작과 매끈한 선율, 미신이 참된 예배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심오한 교리의 깊이를 이해한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예배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 표출에 불과합니다.”⁴⁹⁾

교리의 선포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성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영돈 교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경건의 부단한 노력과 신비체험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높은 경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법적 연합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연합, 즉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칭의의 근거일 뿐 아니라 성화의 효력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된다고 설명한다.⁵⁰⁾

46) 마이클 호튼, 205.

47) (롬 10:17, 개정)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48)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124.

49) 마크 데버 외 6인, 214.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오직의 교리들이 가르쳐질 때, 거기에는 언제나 도덕적인 방종과 방임을 유도한다는 반대가 뒤따른다. 그러나 목회자는 인간의 도덕적인 방종의 원인은 값없는 복음이 가르쳐져서가 아니라 복음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선명하게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성경으로부터 오직의 교리를 추출해내고 선포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윤리적 타락은 칭의 교리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리를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⁵¹⁾

그러므로 바른 교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성경적인 교회의 형성과 예배와 삶은 불가능하다. 바른 교리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체인 교회로서의 예배와 삶이 가능해진다. 존 맥아더는 “믿음은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람이 복음에 종교적 의식, 행동 강령, 교회 정교인 자격 등과 같은 다른 필요조건을 덧붙이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다.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롬3:21-26).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역설하였다.⁵²⁾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체인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주님과 나, 나와 형제의 유기체적이며 공동체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비로소 생명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나 혼자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큰 존재의 한 부분, 본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적인 본체론(Christian ontology)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인간으로서 자기의 바른 윤리적 위치, 하나님 앞에 바른 도덕적인 위치를 찾으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와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대한 사실, 이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돌아다녀도 그리스도의 본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에게는 본체의 부분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⁵³⁾

결론

오늘날 교회현장의 탈 신학화와 탈 교리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신학과 목회현장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리적으로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임을 자부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도 목회현장에서는 더 이상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붙들고 신학적 성찰이나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리나 신학은 단지 하나의 학문일 뿐이지 그들 자신의 신앙의 근원이나 반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팽배하며,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50)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85-106을 참조할 것.

51)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97.

52) 존 맥아더, 44.

53) 김홍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서울:성약출판사, 2003), 71,75.

회의주의가 만연해 있다. ‘신학이나 교리가 더 이상 교회성장과 목회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하에 성장과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깃발을 세우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성경의 충분성은 무시된 채 실용주의에 따라 세속적, 심리학적, 신비주의적, 수도원적인 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세상정신이 교회에 강물처럼 유입되고 있다. 성경은 경영학이나 성공전략도서, 심리학 혹은 윤리교과서로 전락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 됨에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신앙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우수성을 자랑하는 행위의인들을 위한 허영의 시장이 되었다.

찰스 스펔전의 내리막길 논쟁⁵⁴⁾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대 배교를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적인 대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 옛적 길(old path, 렘 6:16)을 찾고 올곧게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의 목표는 철저한 교리의 개혁과 그에 따른 예배와 삶의 개혁, 즉 그리스도의 몸인 성경적인 교회의 형성이었다. 개혁주의 선조들은 성경적 교리의 선포가 성례와 변화된 삶을 이끌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형성을 주도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개혁주의 선조들에 의해서 성경적 교리로 검증된 ‘오직’의 교리에 대해 어떠한 환경이나 목적에 의해서도 일체의 타협을 거부해야 하고 성실하고 올곧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설교자는 성경의 권위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충분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자신의 명령과 약속(마 28:18-20, 고전 1:21)에 따라 신실한 말씀 선포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54) 내리막길 논쟁에 대해서는 존 맥아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4), 285-330을 참고하라.